

## [ 목포권 ]

# 목포 고하도 유원지 개발 첫 삽

2010년까지 1천200억 투입 역사문화 체험교육장으로 조성

민간자본 유치 총무공 테마파크·오션 테마파크…펜션단지도

총무공 이순신 장군 유적지로 널리 알려진 목포  
시 달동 고하도가 유원지로 본격 조성된다.

7일 첫 삽을 뜯고 하도 유적지 조성사업은 오는  
2010년 완공 목표로 사업비 1천199억원을 들여  
공공사업과 민자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.

공공사업은 우선 2010년 8월까지 총연장 5천136  
m의 도로개설 및 확·포장공사, 주차장(5천320㎡)



신안군이 전통마을 숲 보전 등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 발굴로 '대한민국 조경대상' 우수상을 수상했다.

## 신안군 '대한민국 조경대상' 우수상

도로변 경관 숲 조성 등  
섬 특성 살린 시책 추진

신안군이 (사) 한국 조경학회  
주관 '제 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'  
에서 조경정책 부문 우수상을 수  
상했다.

신안군은 최근 2년간 조경사업  
을 시행한 전국 자치단체와 정부  
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경정책  
부문 평가에서 섬으로 이뤄진  
지역 특색에 맞도록 새로운 정책  
을 다수 발굴한 점 등이 높은 평  
가를 받았다. /신안=조완남기자 wncho@

조성 공사를 추진한다.

또 2010년 이후부터 총무공 기념탑 광장, 수군통  
제사 기념비각, 전망대, 오솔길, 가로수 등 편의시설과 각종 경관 조성 작업에 들어간다.  
민자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9홀 규모의 대중  
골프장을 조성하고 복합 체험형 테마파크, 무기관,  
영상관, 북소리 공연장, 무예체험장, 서바이벌장,

목포시는 현재 고하도에 보존돼 있는 일제 강점  
기 건설된 일본군의 병참기지와 방공호(2개소),  
어뢰정을 숨겼던 인공 석굴(11개소) 등을 역사문화  
탐방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청소년들의 역사문화  
체험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.

또 고하도 유원지를 기준 관광자원과 연계해 타  
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  
갈 계획이다. /목포=임영춘기자 lyc@

동행한 군의원·기자 여행경비, 누가 부담했나?

## 무안 공무원 해외연수 뒷말 무성

### "공노조 차원 대응해"야 반발

무안군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  
한 해외연수에 군의회 의원과 기자가  
동행해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  
다.

무안군은 유통 서비스 공로자 13명  
을 선발해 5천500여 만원(군비 4천  
950만원, 자부담 550만원)을 들여 지  
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10박11  
일간 불교문화 유적지 및 연꽃 관련  
기념품 판매장 시찰을 목적으로 인도  
지역 해외연수를 실시했다.

그러나 인도지역 해외연수에 '공무  
국외여행 허가심의' 절차를 거치지  
않은 채 군의회 의원과 기자가 동행  
해 이들에 대한 여행경비를 누가 부  
담했는지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.

무안군 관계자는 "대상자 13명에  
대해서는 여행경비를 개인통장에  
입금했다"면서 "그러나 군의회 의  
원과 기자의 여행경비에 대해서는

아는 바가 없다"고 밝혔다. 의혹을 낳고 있다.

더욱이 이번 연수를 담당한 M여행  
사에 지급된 1인당 경비(423만원)  
가 경쟁사 상품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  
러나 여행경비가 부풀려진 것이 아니  
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.

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인터넷  
게시판을 통해 해외연수에 동행한 군  
의회 의원과 기자를 "공무원들 틈에  
서 기생해 재미본다"고 묘사하는 등  
노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어  
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.

또 일부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 차  
원에서 이번 해외연수에 대한 대응을  
요구하고 있다.

한편 무안군은 유통 서비스 시스템  
에 입력된 일일점검 내용별로 차등  
점수를 부여해 고득점자 순으로 해외  
연수 대상자 13명을 선정했다.

/무안=대성수기자 dss@

### 서해해경청, 이달말까지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

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이달 한 달  
간 서남해 해상에서 기울침 불법 낚  
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.  
단속 대상은 읍주운항, 정원 초과,  
인명구조 장비 비치 여부, 갯바위 무  
단 하선행위와 해기사 면허 소지 여  
부 등이다.

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  
다 적발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 
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  
과된다.

서해해경청은 올 들어 현재까지 승  
선정원 미끼 89건, 정원초과 11건  
등 모두 161건의 불법 낚시 어선을 적  
발했다.

한편 서남해에는 1천500여척의 크  
고 작은 낚시 어선들이 영업행위를

하고 있다. /목포=이상희기자 lsh@



## 진돗개 명견 4마리 탄생 '진도개 월드 도그쇼'

지난 4일 진도군에서 열린 '진도개 월드 도그쇼'에  
서 명견 4마리가 탄생했다. 진도군과 축산사업소는 4  
일 도그쇼 하이라이트인 우수 진돗개 선발대회에서  
조만수씨의 27개월짜리 암컷 '송현' 등 4마리를 대상

견으로 결정했다. 대상견은 전국에서 출품된 470여  
마리 가운데 진도지역과 그외 지역으로 나눈 뒤 체형  
과 외모 등 1,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.  
/진도=박현영기자 hypark@

'민원후견' 공무원이 민원처리 종  
료시까지 드립게 된다.

특히 민원처리 안내를 비롯해  
▲서류보완 및 처리상황 중간 통  
보 ▲실무 종합 심의에서 민원인  
지원 ▲처리결과 우선 통보 및 불  
가 민원은 불가 사유 등에 대해 자  
세히 설명해 주게 된다.

군 관계자는 "민원 후견제도의  
확대 실시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 
관리카드를 작성, 지역민들의 민원  
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"고 말  
했다. /진도=박현영기자 hypark@

## 진도 '민원 후견인제' 호응

### 공무원이 민원인 대변...올 217건 운영

진도군이 운영하는 '민원 후견  
인제'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.

진도군은 노인과 도서지역 원거  
리 거주 민원인 등의 불편 해소를  
위해 올해 217건의 '민원 후견인  
제'를 운영했다.

'민원 후견인제'는 민원사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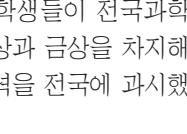
처리에 경험이 많고 지역 실정에  
밝은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

지정해 모든 민원처리 과정에서  
민원인을 대변하는 제도다.

군은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민  
원인으로부터 '민원 후견인제' 지  
정 여부를 물고, 원활 경우 해당

## 목포 초·중생 과학탐구대회 힙쓸어

전자과학분야-김채훈군 대상, 김재훈군 금상



〈김채훈 군〉 〈김재훈 군〉

데 목포지역 학생들이 활동한 실  
력으로 입상했다.

목포 교육청 관계자는 "그동안  
학교 2년)군이 금상을 수상했다.

이번 대회에서 전남도는 대상  
1팀, 금상 1팀, 은상 3팀, 동상 7  
팀, 장려상 7팀이 입상했다.

특히 전자과학 부문은 서울을  
비롯한 전국 시·도 대표 초등부  
35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

## 목포대 8~9일 이틀간 '멀티미디어 페스티벌'

목포대학교가 8·9일 이틀  
간 대학 내 플라자 60 다목적  
강당에서 '제 6회 2008 멀티  
미디어 페스티벌'을 연다.

이번 페스티벌에는 멀티미  
디어 콘텐츠와 응용개발 전  
문 인력을 육성하고 있는 학  
내 14개 팀의 작품이 전시된

또 멀티미디어 장비 전시,  
인터넷 생방송 등과 함께 체  
험관(가상현실, 방송장비 체  
험)을 운영하고 1·2학년 학  
생들이 참여하는 캐릭터, 로  
고, 바탕화면, 사진 경진대  
회 등 마련된다.

/목포=이상선기자 sslee@

光州日報 지사안내		
동부권	서부권	중부권
동부취재부본부 (061)908-8111	목포 (061)276-9200	나주시 (061)332-5544
여수 (061)653-8444	강진 (061)434-6830	나주군 (061)332-7764
광양 (061)792-8111	무안 (061)452-8535	담양 (061)383-8111
순천 (061)746-8111	신안 (061)243-3758	영암 (061)473-2340
고흥 (061)842-2121	완도 (061)351-0055	장성 (061)392-2100
래제 (061)783-8111	영광 (061)543-0100	장흥 (061)863-8822
곡성 (061)362-8111	진도 (061)543-8111	화순 (061)374-4423
성성 (061)853-1190	함평 (061)324-8111	광산 (062)944-0444